롯데면세점,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 론칭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은 세계 최대 종합 화장품 브랜드인 로레알 그룹과 손잡고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인 '드림 페이스'(Dream Face·사진)를 론칭했다.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가상으로 체험한 후 구매하는 모바일앱 서비스다. 립스틱,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등 다양한 색조 카테고리의 수십여 색을 조화시켜 얼굴 형태 및 이목구비, 기존 메이크업 등을 고려한 컬러 추천이 가능하다. 참여하는 브랜드는 랑콤, 조르지오 아르마니, 어반디케이, 로레알 파리 등 로레알 그룹 4개 브랜드다.

역대급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 26일 개막

두바이 관광청은 26일부터 2020년 2월 1일까지 두바이 전역에서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Dubai Shopping Festival·사진)을 진행한다. 두바이 행사 진흥청(DFRE)이 주관하는 행사로 두바이 최대 규모의 쇼핑 페스티벌이다. 올해 25주년을 맞아 약 한 달간 1000여개가 넘는 브랜드와 3000여개의 매장이 참여한다. 여행객들은 상시할인 외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버즈 칼리파 앞 버즈 파크에서는 야외 팝업 마켓인 '마켓 아웃사이드 더 박스'가 열린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김재범 기자의 투얼로지 |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남산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장'

한국 최초 천주교 본당 '명동성당'

신나게 '호캉스' vs 경건하게 '성당투어'

안다즈 서울 강남 등 호텔서 인생사진
명동성당·약현성당 등서 마음의 정화
타임스퀘어·서울시청광장 야외명소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역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둔 마음은 평소보다는 조금 설레이고 들뜨게 된다. 올해 크리스마스와 연말 트렌드는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이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올리고 싶은 멋진 포토샷이 있느냐가 장소를 선택하는 우선 기준이 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시즌을 앞둔 특급호텔들은 요즘 이른바 '찍캉스' 핫스팟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떠들썩한 이벤트 대신 성탄의 원래 의미를 차분히 음미하며 지내고 싶다면 명동성당 약현성당 등 유서깊은 서울 시내 성당을 추천한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들 성당들은 굳이 종교가 다르더라도 찾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

●유럽풍 크리스마스 마켓을 그대로 재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의 올해 테마는 크리스마스 마을이다. 파라다이스시티의 허브인 플라자에 크리스마스 하우스를 중심으로 포토존을 조성하고 상점들이 감싸고 있는 동화 속 산타마을을 재현했다.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 서울은 '골든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포토존을 꾸몄다. 로비의 황금빛 크리스마스 트리와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한 은빛 아이스링크가 포토존의 핵심이다.

안다즈 서울 강남은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크리스마스를 내세웠다. 재활용 가능한 커피캡슐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만들었다. 15m의 레드카펫 계단은 4개의 대형 조형물로 포토존을 꾸몄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은 로비를 로맨틱한 파리의 크리스마스 거리로 꾸몄다. 7m 높이 에펠탑에 골드와 실버 컬러가 조화를 이룬 크롬볼, 오너먼트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41층 로비가 인상적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는 인형 브랜드 한사토이와 함께 하얀색 북극곰과 사슴이 모자와 목도리를 두르고 방문객을 맞는 모습을 꾸몄다.

성탄 인생샷을 완성시켜줄 야외 명소도 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몰에서는 크리스마스 미디어쇼를 진행한다. 타워와 쇼핑몰 벽면을 활영해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10분 간격으로 8분 동안 진행한다.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는 금빛 전구가 내뿜는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요즘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울 시청광장도 요즘 크리스마스 포토샷 명소로 각광받는다. 광장에 들어선 20m 높이의 디지털 트리에서는 영어와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성탄의 참뜻 생각하게 하는 성당들

서울 명동성당은 1898년에 완공된 한국 최초의 천주교 본당이다. 서울주교좌성당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반영한 개신교의 분파인 성공회 성당의 본당이다. 두 성당은 건축양식도 다르다. 명동성당은 고딕 양식으로 지었고, 서울주교좌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만들어 건축적 개성이 뚜렷하다. 11~12세기 중엽에 등장한 로마네스크 양식은 둥근 아치 형태의 천장을 강조하는 건축방식이다. 창문을 통해 성당으로 들어오는 빛이 제한적이라 내부는 어둡고 엄숙하다. 반면 고딕 양식은 12~13세기에 사용된 건축방식이다. 천장을 높고 뾰족하게 지었고, 창문을 세로로 길게 만들어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늘렸다. 성당 내부로 빛을 끌어들이면서 스테인드글라스가 발달했다.

약현성당은 서울 중림동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이다. 붉은 벽돌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려한 장식이나 웅장한 규모는 아니지만,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절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연말, '한옥스테이'서 머물러볼까

복합한옥공간 곳·사이드 등 체험형 숙박 인기

창덕궁 왼쪽 계동길에 위치한 '복합한옥공간 곳'은 서울에서 한옥의 정취를 느끼며 쉴 수 있는 체험형 숙박시설이다.

서울의 북촌과 서촌 일대에는 한옥의 정취를 느끼며 머물 수 있는 개성 넘친 한옥스테이들이 있다. '복합한옥공간 곳'과 '사이드'는 서울관광재단의 대체숙박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서울스테이로 지정된 체험형 숙박시설이다.

'복합한옥공간 곳'은 창덕궁 왼쪽 계동길에 있다. 이곳은 용도에 따라 공간을 모이는 곳, 머무는 곳, 맛보는 곳으로 구분한다. 숙박객에게 아침식사로 유기농 수제 빵과 요거트, 잼 등을 제공하는 것이 매력이다.(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도보 10분. 서울 종로구 계동길 52-11. 070-8288-1289)

'사이드'는 경복궁의 왼쪽, 흔히 서촌으로 알려진 누하동에 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상의 벗이었던 구본웅 화백이 거주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집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다. 안채, 문간채, 사랑채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언덕 위의 사랑채가 이곳에서 가장 돋보이는 곳이다. 천장의 대들보와 서까래를 옛 모습대로 살려 한옥의 운치를 살리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가구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도보 10분.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7-5. 070-8840-6309)

김재범 기자